

I. 문제제기

☐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은퇴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50세 이상 인구는 1,200만 명으로 추산됨.
- 은퇴 후에는 급격한 지위 변화로 인하여 복잡한 정신적 불안정과 심리적 혼돈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직업에 의지하는 비율이 높은 남성들에게 은퇴는 더욱 큰 상실감을 줌.

☐ 이용자의 공간 선호도를 반영한 실수요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함.

- 도심 일터로 출퇴근하던 향수가 남아있어, 거주지 주변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거부하고 ‘도심 내 옥외 특정지역’에 군집하는 ‘제3의 노인그룹’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외부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남성들에게 집,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실내 환경은 ‘하루를 보내기’에 매우 답답한 장소임.
- 남성노인들의 경우 개방된 공간을 선호하고 매일 출근하듯 도시지역 공원으로 모이는 도심 공간 선호도를 보임.
- 노인군집지역은 기피지역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2010년 국토해양부는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설치가 가능토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일반적으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은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됨.
- 실제로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타 지역에서 온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입지 고려가 필요함.

Ⅱ. 현황분석

1. 노인인구와 복지시설 현황

- ☐ 2009년 기준으로 경기도 노인인구¹⁾는 약 96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8.4%에 해당함(2010 도정주요통계).
- ☐ 노인들의 사회 및 여가활동 욕구 충족을 위해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거 전국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가 이에 해당됨.
- ☐ 일반적으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해당 지역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

1) 우리나라 법률상 노인의 연령기준을 살펴보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 근로자의 고령자는 5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 이상(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이상)에게 노령연금 지급하도록 규정.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 통계 상 작성되고 있는 고령자의 연령기준은 65세 이상임.

- 경로당 소유자는 아파트 주민회, 마을 주민회 등이나 운영주체는 읍·면·동이며(냉난방비, 운영비 등 지원) 지역노인회 등에 관리 위탁됨.
- 노인복지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에 의해 시·군·구별 최소 1개소 이상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되며, 설치 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의해 위탁 운영될 수 있음.

〈표 1〉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목적과 이용대상자

시 설	설치목적	이용대상자
노인 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인 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 시설을 단기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

〈표 2〉 경기도 노인여가복지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노인복지회관	29	34	35	40	42	44
경로당	7,270	7,447	7,783	8,192	8,158	8,461
노인교실	117	132	139	144	168	182
노인휴양소	1	-	1	1	1	1

자료 : 경기도(2010), 『2010 도정주요통계』.

2. 노인의 공간성향

- ☐ 노인의 여가활동 성별차이를 말할 때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성 역할이론(Gender role theory)으로서, 사회와 가정 및 직장에서 남녀의 역할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남.
- ☐ 여가활동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남성은 실외 여가활동을 자주 하게 되지만 여성 노인은 가족 중심적 여가활동을 더 자주 함.
 - 노인들의 여가시간은 7시간 12분으로 남성은 미디어이용이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에 여성은 종교 활동과 가족 중심적 여가활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활용함(박미석, 2004 ; 보건복지부, 2008 ; 이윤정 · 정순희, 2003 ; 이현기, 2008).
- ☐ 주로 남성노인들이 도시지역 공원으로 모이는 현상이 나타남.
 -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높은 도시공원은 갈 곳 없는 노인들에게 여가 및 사회활동을 위한 선호시설이 되며, 자연스럽게 노인들만의 군집을 형성함.
- ☐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도시민의 사회생활 속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도심 공간 선호도를 보임.

- 서울 탑골공원을 찾는 노인의 평균연령은 76.4세로 이용객의 23%가 경기권 거주자로 그 중 50% 이상이 80세 이상의 고령자임(이소영 외, 2003).
- 매일 출퇴근 하듯 도심 공원에서 낮 시간 대부분을 보내는 등 소일을 위한 공간을 넘어 도심 속 사회공간의 의미로 자리 잡고 있음. 특히 고령 남성 노인들이 도시 공공 공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사회활동을 연장하고자 하는 심리를 나타냄(이소영 외, 2003).

3. 주요 노인군집지역 현황 및 특성

☐ 서울의 탑골공원과 종묘공원(종묘 지하주차장 상부)

- 서울의 대표적인 노인군집지역으로 서울시 종로구 종로 2, 3, 4가에 위치하여 지하철 1, 3, 5호선이 만나는 종로 3가역이 있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무료로 전철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의 편리함과 높은 접근성으로 많은 노인들이 즐겨 찾음.
- 공원주변에 큰 규모의 동대문 재래시장과 인사동 등 중심상권이 형성되어있으며, 공원주변으로 노점 등도 다수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심지역임.
- 탑골공원은 2001년 3월 ‘탑골공원 성역화 작업’이 시행되면서 공원 내에서 이루어져 왔던 장기·바둑 두기, 악기연주, 음주가무 등의 행위금지와 매점이나 나무벤치 등이 제거되고, 상징물 관람 중심의 관람 코스 조성으로 인해 하루 2,000여명 이상이었던 노인이용자수가 하루 평균 50명 내외로 대폭 감소하였음.

- 반면, 종묘지하주차장 상부일대의 종묘공원은 기존 탑골공원의 이용자들의 대거 이동으로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2,000~3,000명에 달함.
- 종묘공원 내 위치한 화장실과 커피숍 등의 편의시설은 매일 관리보수되고 있으나 그 외 노인 분들을 위한 특별한 시설물은 없음.
- 전반적으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노인들이 여가를 보내고 있다고 하기에 매우 어려움.

☐ 경기도 수원 화성 앞 장안공원

- 수원의 대표적인 노인군집지역인 장안공원은 수원시 장안문 밖에서 화서문 쪽으로 이어지는 수원성곽 옆에 위치하며, 수원역에서 버스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함.
- 이곳에서는 매년 화성문화제를 비롯한 어린이 백일장, 그림그리기 대회, 수원갈비축제와 제기차기·윷놀이·널뛰기·연날리기 등의 민속놀이, 그리고 한복맵시자랑과 투호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림.
- 하지만 평일 낮 시간에는 주로 도보 및 자전거로 방문한 노인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음.
- 노인 분들은 주로 그늘벤치에 모여 낮잠, 장기·바둑 두기 등으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주변에 재래시장인 장안문 거북시장이 있으나 공원노인이용객과 특이한 관계는 없음.
- 유적지 주변으로 매우 깨끗한 환경조성이 되어있으며, 여가시설물로는 그늘벤치 몇 개소와 약간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음.

〈그림 1〉 경기도 수원 화성 앞 장안공원의 평일 오후 전경



□ K 시 S 시장 옆 어린이 공원

- 경기도 K 시 S 시장 바로 옆에 위치하며 서울 종묘주차장과 유사한 모습으로 많은 노인 분들이 모여 바둑·장기·윷놀이 등의 여가를 즐기고 있음.
- 매우 협소한 공간으로 쾌적하지 않은 환경으로 인근주민이 선호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임.
- 어린이들이 찾지 않는 어린이공원이 되어 조합놀이터, 하늘걷기 등 어린이를 위한 시설물은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공원 내 화장실이 없어 무단방뇨 등이 이루어지기도 함.
- K 시에서는 노인들이 모여드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공원 내 설치되어 있던 정자를 평의자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할아버지들의 쉼터가 되고 있음.

〈그림 2〉 경기도 K 시 S 시장 옆 어린이 공원의 평일 오후 전경



□ 노인군집지역의 특징

- 구도심 내 외부 공간으로 녹지 환경이 제공되고 있으며, 인근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재래시장이나, 주요문화재 등이 입지하고 있음.
-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 경로우대로 지하철 무료이용이 가능하여, 노인군집지 도보권 내에 지하철역이 위치하고 있을 경우 이용도는 매우 높음.
- 지하철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의 노인이용자는 주로 도보나 자전거로 공원을 찾음.
- 즉, 지하철 등 무료 대중교통과 연계성이 높은 지역은 큰 규모로 노인 테마공원 조성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인근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접근성을 높인 작은 규모로 조성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임.
- 오랜 시간을 머무나 바둑이나 장기 등 제한적인 여가활동을 즐기나, 노인들을 위한 시설물이 많지 않으며, 쾌적하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 인근시민으로부터 다소 기피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음.

Ⅲ. 노인친화형 공원 관련사례

1. 노인친화형 공원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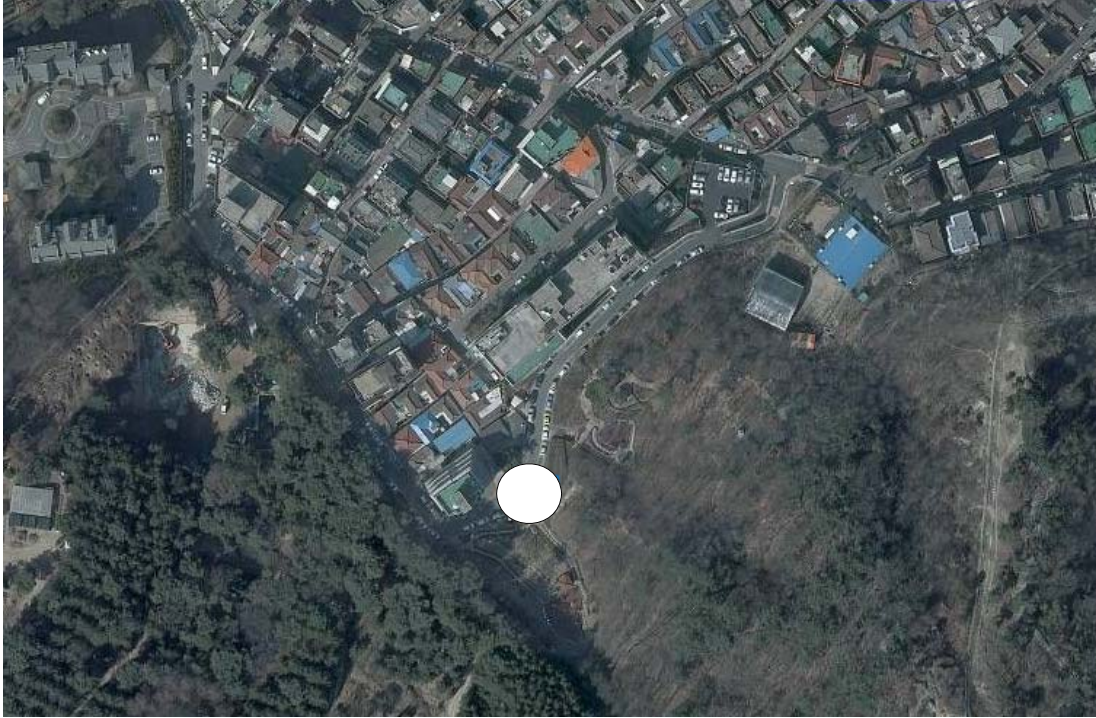
- ☐ 노인친화형 공원이란 노인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이라 할 수 있음.²⁾
- ☐ 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만족스러운 여가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원으로 노인의 신체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설계와 시설물 배치가 필요함.

2. 노인친화형 주제공원

- ☐ 2008년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 청량근린공원 내에 120m² 규모의 ‘어르신 건강마당’ 조성함.
 - 어르신 건강마당은 주택밀집지역과 인접한 국공유지 임야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야 주변에는 한국과학기술원, 산림청, 임업연구원 등이 있음.
 - 바벨, 허리돌리기, 뽐틀 등 노인이 사용하기에 알맞도록 특수제작된 운동·재활기구가 비치되고, 무릎관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충격흡수식 고무자재로 ‘口’(길이 80m) 형태의 걷기용 트랙을 조성하였음.

2)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그림 3〉 상월곡동 어르신 건강마당의 위치(흰점 : 공원위치)



- 2009년 7월 서울시 강북구는 버드나무 어린이공원과 오동근린공원 일대에 5,971m² 규모의 노인친화형 주제공원 조성
 - 강북구 번동의 노인친화형 주제공원은 버스차고지와 병원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오패산과 번동사거리가 있음.
 - 버드나무 어린이 공원은 상체 근육 풀기, 공중 걷기 등 다양한 운동기구와 놀이기구, 숲속산책로, 게이트볼장, 정자 등을 설치함. 특히 산책로는 노인들의 무릎을 보호할 수 있도록 쿠션 기능이 있는 탄성 포장과 황토포장으로 조성하였음.

〈그림 4〉 강북구 번동의 노인친화형 주제공원의 위치(흰점 : 공원위치)



☐ 2007년 서울시는 보라매 근린공원 재 조성

- 옛 공군사관학교 터에 조성한 공원으로 2007년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을 위한 테마공원으로 재 조성하였고,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재활교육시설 등이 입주하여 다양한 계층이 즐겨 찾는 공원임.
- 잔디마당, 수경시설(연못, 벽천 등), 무궁화동산 등의 조경시설과 조깅 트랙,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다목적운동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X-game장, 인공암벽 등반장, 게이트볼 장, 지압보도 등의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다양한 계층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임.

3. 노인친화형 근린공원

- ☐ 수원시 매탄공원은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멀티스포츠 공원’으로 탈바꿈

-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하며, 1989년 조성된 공원으로 2009년 7월 지상 2층 연면적 3,058㎡ 규모로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되었으며, 1층에는 경로당, 탁구장, 체조교실, 바둑교실, 사무실 등, 2층에는 배드민턴장, 농구장, 배구장이 입지하고 있음.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만석공원 내 청솔노인복지관 조성

- 공원 내 음악당, 체육관 등 주요 부대시설은 주거·상업지역 인근에, 복지관은 주요 부대시설 반대편 아파트단지 쪽에 입지하고 있음.
- 복지관은 4,971㎡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내부에는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실, 컴퓨터실, 바둑실, 장기실, 노래교실 등이 있음.

〈그림 5〉 수원시 만석공원 내 청솔노인복지관의 위치(흰점 : 복지관 위치)



4. 관련 사례 종합

- ☐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춘 체육시설 중심의 노인공원이 조성되는 추세이며, 향후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해서 폭 넓게 조성할 필요가 있음.

- ☐ 대부분의 노인친화공원은 임야 인근에 위치하거나 타 시설에 비해 비교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어, 노인들의 도심 선호성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대부분의 노인친화공원은 거주지 주변에 조성되고 있으며, 현재 많은 노인들이 모여들고 있는 기존 도심 내 노인군집지역에 대한 개선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음.

IV.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방안

1. 제도적 측면

- ☐ 기존 공원을 노인친화형 주제공원으로 변경 조성이 가능함.
 - 기존에 소공원, 어린이 공원, 체육공원 등으로 조성되었으나 자연스럽게 노인 분들이 모여 실제 이용자가 된 도심 내 공원들은 과감히 노인친화형 주제공원으로 전환·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공원, 어린이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에서는 경로당·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할 수 없으나 주제공원에는 설치 가능함.
 - 노인친화형 주제공원으로 전환 시 공원 규모에 맞는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복지시설 설치가 가능함.

☐ 기존 근린공원에 노인 분들을 위한 시설물 추가·보완 조성이 가능함.

- 근린공원에는 공원 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노인의 신체적 특성과 남성노인의 활동성향을 반영한 발 지압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의 설치를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신규 주제공원으로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이 가능함.

- 주제공원 중 특별히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설치 및 규모기준이나 시설 부지면적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노인친화형 주제공원 조성이 가능함.

2. 노인친화형 공원 입지선정 시 고려할 점

☐ 여전히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심 속 노인을 위한 공간조성이 필요함.

- 탑골공원 노인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탑골공원 이용횟수는 매일이 56%, 이용시간은 오전~오후가 80%를 차지함(이소영·김혜정, 2003 ; 송혜자, 2008).
- 청주중앙공원 이용객의 경우 방문빈도는 매일이 49.4%를 차지했으며, 체류 시간은 오전~오후까지가 4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재래시장 주변에 노인친화형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장소 제공이 필요함.

- 은퇴노인들에게 필요한 심리적 요소는 편안함 뿐만 아니라 현역시절을 느낄 수 있는 바쁜 일상이 이루어지는 곳임. 따라서 은퇴노인들에게는 ‘퇴역의 느낌’보다는 재래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삶의 활력’이 필요함.
- 도심 내 노인친화형 공원 주변에는 단순한 휴식 이상의 낮 동안의 활동(Daily activity)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먹거리, 일거리, 할거리가 있어야 함.
- 공원 주변 시설(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상점·노점상 이용이 높게 나타난 바 있음(송혜자, 2008).

□ 도심 속 접근성이 뛰어난 장소로 가급적이면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곳에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탑골공원의 경우 집에서 공원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된다는 노인이 67%였으며, 이용수단은 지하철이 54%를 차지하였음. 또한 지하철 유료화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약 49%가 지하철 유료화 시 공원에 덜 오게 되거나 못 올 것이라고 응답해, 무료 대중교통이 공원 방문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적야천심, 1999).
- 탑골공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지하철을 이용하여 방문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70%를 차지함(이소영·김혜정, 2003).

□ 필요시 거주지에서 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보권 내 작은 규모로 여러 개의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도 바람직함.

- 지하철이 없는 청주중앙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도보로 이동하는 비율이 40.2%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소요시간은 30분 미만이 77.0%를 차지함(송혜자, 2008).

3. 공원 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설치 시 고려할 점

□ 공원 내 노인복지관·경로당은 행정안전부의 노인복지관 신축 관련 분권 교부세 또는 기부에 의한 설립 고려가 필요함.

□ 운영비와 관련해서 노인친화형 공원 이용객이 해당 지역 거주자일 경우는 현행대로 운영하고, 해당 지역 이외에서 온 이용객 비율이 높은 공원 내 복지관의 경우 경기도가 시·군으로, 공원 내 경로당의 경우 시·군이 읍·면·동으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일반적인 경로당의 운영주체와 이용대상은 읍·면·동과 해당지역 거주 노인이며, 노인복지관의 운영주체와 이용대상은 시·군과 해당지역 거주 노인임.
- 설치 후 관리운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이 가능할 것임.

- 노인친화형 공원의 규모 고려 시, 노인복지관의 법정시설 및 규모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경우, 최소한의 시설과 규모로 설치가 가능한 분관의 형태로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있음.
- 분관의 운영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영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 하에 기존 노인복지관 운영 주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함.

4.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 전략

- 노인 분들이 많이 모이는 기존 어린이 공원을 노인친화형 주제공원으로 조성
 - 경기도 K 시 S 시장 옆 어린이 공원의 경우 현재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어린이보다는 노인 분들의 이용도가 매우 높음.
 - 실제 이용자를 고려해서 기존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노인을 위한 시설물로 교체 후 노인친화형 주제공원으로 변경 조성이 가능할 것임.
 -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을 비롯한 정자, 평상 등의 휴게공간과 운동시설 그리고, 무단방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장실 설치가 바람직할 것임.
 - 노인친화형 공원으로 재 조성 될 경우 지하철역으로부터 500m, S 시장으로부터 200m 도보권 내에 위치하여 접근성 확보 및 재래시장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조성이 가능할 것임.

〈그림 6〉 K 시 S 시장 옆 어린이공원의 오후 전경



☐ 노인 분들이 많이 모이는 기존 공원에 노인 분들을 위한 시설물 추가

- 수원 화성 앞 장안공원의 특성상(세계문화유산인 화성 앞에 위치) 공원 내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노인복지시설은 공원에서 가까운 주변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임.
- 현재 이곳에는 평상, 의자 등 휴게시설과 약간의 운동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음.
- 정자나 벤치 등의 휴게시설과 운동시설의 추가 설치가 가능할 것이며, 이때 성곽모양이나 전통문양을 본 뜬 휴게 및 운동시설 설치로 주변과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신규 주제공원으로 노인친화형 공원을 조성할 경우

- 현재 수원역 주변에는 공원이 없어 별도의 토지확보가 필요하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수원역과 수원역전 시장 주변에 노인친화형 공원을 조성한다면 생동감 있는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이 가능할 것임.

V. 정책적 시사점

- 도심 속 공원으로 자연스레 모여드는 실 수요층에 대한 대책으로 기
피시설로 여겨지고 있는 노인군집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정비하여
노인 분들의 자존감을 세워줄 필요가 있음.
- 자연공원 등 도심 외곽에 조성하기보다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
고 다채로운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재래시장과 지하철역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한 지역에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임(65세 이상 무료승차).
-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현실적 대처를 위해서라도 노인 분들의 이용도
가 높은 기존의 어린이 공원을 과감히 노인친화형 주제공원으로 변경
조성이 필요하며, 필요 시 기존 근린공원에 노인 분들을 위한 시설물
추가·보완, 또는 적정 위치에 신규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이 바람직함.
- 노인군집지역에는 이용자 수와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공원과 연계 운영이 바람직함. 잠재적 이
용자 및 수요가 높은 곳에 공급이 필요함.
- 공원 내 노인복지관·경로당은 행정안전부의 노인복지관 신축관련 분
권 교부세 또는 기부에 의한 설립을 고려할 수 있음.
- 운영비와 관련해서 이용자가 해당 지역 거주자일 경우 현행대로 공원
내 복지관 운영주체는 시·군이, 경로당은 읍·면·동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
- 해당 지역 이외에서 온 이용자 비율이 높은 공원 내 복지관의 경우
경기도가 시·군으로, 공원 내 경로당의 경우 시·군이 읍·면·동으

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향후 도심 노인친화 공원이 노인만을 위한 전용지역이 아닌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세대 통합형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라도 노인군집지역 환경정비를 통한 부정적 이미지 탈피는 매우 중요함.

요 약

- 남성노인들의 경우 개방된 공간을 선호하고 매일 출근하듯 도시 지역 공원으로 모이는 도심 공간 선호도를 보임.
- 도심 내 옥외 특정지역에 군집하는 노인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노인군집지역은 기피지역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노인 분들의 자존감 회복차원에서라도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을 통해 이 지역의 체계적 관리·정비가 필요함.
- 노인군집지역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재래시장과 지하철역 주변에 노인친화형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노인 분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장소 제공이 필요함.
-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현실적 대처를 위해서라도 노인 분들의 이용도가 높은 기존의 어린이 공원을 과감히 노인친화형 주제공원으로 변경 조성이 필요하며, 필요 시 기존 근린공원에 노인 분들을 위한 시설물 추가·보완, 또는 적정 위치에 신규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이 바람직함.
- 노인군집지역에는 이용자 수와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공원과 연계 운영이 바람직하며, 잠재적 이용자 및 수요가 높은 곳에 공급이 필요함.

- 공원 내 노인복지관·경로당은 행정안전부의 노인복지관 신축관련 분권 교부세 또는 기부에 의한 설립을 고려할 수 있음.
- 운영비와 관련해서 이용자가 해당 지역 거주자일 경우, 현행대로 공원 내 복지관 운영주체는 시·군이, 경로당은 읍·면·동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
- 해당 지역 이외에서 온 이용자 비율이 높은 공원 내 복지관의 경우 경기도가 시·군으로, 공원 내 경로당의 경우 시·군이 읍·면·동으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향후 도심 노인친화 공원이 노인만을 위한 전용지역이 아닌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세대 통합형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라도 노인군집지역 환경정비를 통한 부정적 이미지 탈피는 매우 중요함.

Policy Brief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방안

- 작성 : 강상준 / 환경정책연구부 연구위원
(skang8@gri.kr, 031-250-3152)
박은아 / 환경정책연구부 연구원
(pea83@gri.kr, 031-250-3249)
- 감수 : 권태정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edankwon@pmo.go.kr, 010-2807-5884)

■ 목 차

- 요 약
- I. 문제제기
- II. 현황분석
- III. 노인친화형 공원 관련사례
- IV.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방안
- V. 정책적 시사점